FRIEZE LONDON 2025

PKM Gallery | Stand A1
October 15 - 19, 2025 | The Regent's Park

출품 작가 l 이정진 홍영인

PKM 갤러리는 오는 10 월 15 일 개막하는 프리즈 런던 2025 갤러리 섹션에 두 명의 여성 작가 **이정진**과 **홍영인**의 작품을 출품한다.

지난 6 월, 영국에서 열린 개인전이 더 가디언과 파이낸셜 타임즈에 크게 소개되며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**이정진**은 사진의 전통적 역할인 재현과 기록을 넘어, 직관과 감성으로 빚어낸 명상적 이미지를 제시해온 작가다. 그는 한지에 감광유제를 직접 바르고 인화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발전시켜왔다. 이번 프리즈 런던에서는 그의 신작 Unseen 시리즈 1 점과 Voice 시리즈의 대형 사진 작품 2 점이 출품된다. 그의 사진은 눈앞의 자연 풍경을 단순히 기록하는 대신, 그 너머의 시간과 숨결을 담아내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여성적 생명의 에너지와 울림을 전한다.

홍영인은 우리 삶의 역사 곳곳에 존재하는 남성적 위계 구조를 자수, 직조 등 여성적이고 유연한 다매체적 접근을 통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. 이번 프리즈 런던 출품작 〈One Gate Between Two Worlds〉(2021)은 '감모여재도' 라는 사당 그림에서 모티브를 얻은 대형 자수 작업이다. 이 사당도는 조선 시대 유교 제례 의식에서 비가시적인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. 작품에서는 누각과 같은 감모여재도의 도상들이 차용되면서도 그 엄격한 유교적 공간이 여성의 부드러운 크라프트 제작 방식을 통해 재구성되고 픽션화되었다. 대형 행잉 자수 작업 〈Woven and Echoed〉(2021)에는 뒤집어지거나 파편화된 단어와 문장들이 얽혀 있는데, 이 텍스트들은 1970-80 년대 한국 섬유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직공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. 작가는 이러한 해체적 다시 쓰기를 통해 남성중심의 거대 서사에 가려져 있던 여성 노동자들의 개별 서사를 시적으로 조명하고, 이를 단선적 역사 쓰기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의도한다.